

통신전문가-  
**한국통신프리텔**

**NEW BEST**  
새로운 기술, 최상의 서비스

016으로 바꾸길 잘 했어요.  
통화료싸죠,  
소리까지 보이거든요.

요즘 피다 이6이예요.  
국민기업이 만들어  
믿음만 하잖아요.

#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97년 10월 1일 본격적인 상용서비스를 시작한 한국통신프리텔, 국민 여러분의 믿음으로 6개월이라는 최단기간에 100만 가입자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때 이렇게 엄청난 마케팅 신기록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한국통신의 100년 노후에 첨단 PCS기술이 접목되었기 때문이며, 나아가 통신만큼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국민 여러분의 믿음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한국통신프리텔을 사랑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국민기업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기술, 최상의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 한국통신프리텔은 이동전화의 신기록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1997년 6월 국내최초 이동전화 신용카드 복합서비스 실시
- 1997년 9월 업계 최대 예약가입 고객 달성
- 1997년 9월 PCS 최초 지하철 광중계방식 제안 및 설치
- 1997년 10월 PCS 016 상용서비스 개시
- 1997년 10월 이동전화업계 최초 보증금제도 폐지
- 1997년 12월 PCS 최초 광분산 시스템 도입 및 상용화
- 1997년 12월 주요 일간지 선정 PCS업계 최다히트상품 선정(12개)
- 1998년 4월 통합망 완성으로 완벽한 전국통화 실현
- 1998년 4월 업계 최초 양방향 문자정보 서비스 실시
- 1998년 4월 세계최초 최단기간 100만 가입자 돌파
- 1998년 5월 서울, 대구, 부산 지하철 전구간 서비스 완전 개통
- 1998년 6월 PCS를 통한 무선 데이터통신 실현
- 1998년 9월 통화량이 많아도 문제 없는 지능형 기저국 실현
- 2002년 품의 통신 IMT-2000 상용화

이6이 랩이예요.  
지하철에서도 잘 터지죠.  
부가서비스도 공짜거든요.

통신하면 믿을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통신이 만든 PCS 016이죠!

하루 이틀 쓸 거 아니잖아요.  
기술부터 서비스까지  
확~차이나요.

# 세계 최초, 최단기간 100만 가입자 돌파!

소리가 보인다  
**PCS 016**